

스마트한 기능과 다채로운 디자인을 갖춘 BESPOKE 인덕션



대한민국 제품혁신상 대상
삼성전자(주)
BESPOKE 인덕션
22년 연속 수상



CHECK POINT

- 깔끔한 화이트 세라믹 글라스 상판과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한 조작부
- 화구와 컬러를 다양하게 구성(플렉스, 듀얼링 3구, 싱글 3구)
- 다양한 용기를 여유롭게 활용 가능
- '스마트싱스 쿡링(SmartThings Cooking)' 서비스와 연동
- 잔열 표시, 안전 잠금 등 16가지 안심 설계

BESPOKE 인덕션

대형 용기도 여유롭게, 더 넓어진 화구

22년형 BESPOKE 인덕션은 '듀얼링 대화구'와 '콰트로 플렉스존'이 있어 다양한 용기를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듀얼링 대화구는 용기 크기에 따라 2개의 코일(21cm/28cm)이 자동으로 작동해 지름 28cm의 대형 프라이팬과 냄비 등의 대형 용기도 빈틈없이 직화열로 조리할 수 있다. 또한 콰트로 플렉스존에는 자동 용기 감지 기능이 적용된 4개의 코일을 촘촘하게 배치, 화구의 경계를 없애 요리의 편리함을 더했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용기를 올려놓은 후 별도의 화구 선택 없이 화력 설정만 해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넓은 사각 그릴 팬으로 조리해도 사각지대 없이 균일하게 가열되어 음식이 부분적으로 타거나 덜 익는 현상을 줄여준다.

말키트부터 전문가 스타일의 요리까지, 스마트콕으로 똑똑하게

22년형 BESPOKE 인덕션에는 '스마트콕' 기능을 탑재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스마트콕은 ▲밀키트·간편식의 바코드를 스마트싱스 앱으로 스캔하면 단계별 요리법을 제공하고 BESPOKE 인덕션으로 최적의 조리값을 보내주는 '간편식 스캔콕' ▲콕 센서와 콕 팻을 활용, 국·탕, 찌개, 나물 요리 등의 메뉴에 적합한 화력과 시간을 설정하여 전문적이고 섬세한 요리를 도와주는 '자동 맞춤 요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BESPOKE 인덕션 전용 온도계 콕 센서는 스마트콕을 위한 탐침형 온도계로, 조리물 온도를 수시로 확인하며 섬세하게 조리할 수 있고, 특히 스테이크를 요리할 때 원하는 익힘 정도(레어, 미디움 등)를 맞출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국물 요리 시 BESPOKE 인덕션의 '끓어 넘침 방지' 버튼과 함께 사용하면 국물이 넘치지 않도록 똑똑하게 화력을 조절한다. [참고 : (1) 자동 맞춤 요리 메뉴는 스마트싱스 쿡링에 등록된 파트너사 간편식/말키트 상품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대화구에서만 활용 가능 (2) 콕 센서는 플렉스(NZ63B6657**) 모델 구매 시 함께 제공(NZ63B6527**, NZ63B650*** 모델은 별도 판매)]



CEO INTERVIEW



이재승
삼성전자(주) DA사업부 사장

소비자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주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홈(BESPOKE HOME)의 다양한 제품들이 대한민국 혁신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가전을 나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소비자 중심에서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 가전 브랜드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비스포크 홈을 선보이면서 소비자의 공간을 취향에 맞춰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 핵심 부품을 평생동안 보증해 오랜 시간 믿고 쓸 수 있는 품질, 인공지능(AI)과 '스마트싱스 홈라이프'를 기반으로 사용 경험에 있어서도 나에게 맞춰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맞춤형 가전을 제안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